

主題名目錄 作成의 問題點

—學校圖書館을 中心으로—

趙 基 弘

(天安北中學校 司書教師)

《目 次》

1. 序 論
2. 主題名目錄을 構成하는 카드의 種類
3. 標目的 採擇과 그 用語
4. 標目表의 處理
5. 標目表의 訂正
6. 結 論

1. 序 論

圖書館에 있어서의 目錄(Catalog)의 作成은 그 圖書館에 있어서의 資料의 利用度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나? 의 重要한 問題이다. 閱覽者에게 資料를 案内하여 限定된 資料를 最大限으로 利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目錄의 構成 如何에 달려 있다고 보겠다.

學校圖書館의 閱覽者라 함은 거의 全部가 그 學校에 在學中인 學生에 局限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學校圖書館의 運營은 學生을 爲主로 하고, 또한 目標로 함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目錄의 作成도 學生들에게 最大의 便利를 提供해 줄 수 있는 方向으로 끌고 나아가야 할 것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學校圖書館의 閱覽用 目錄으로는 辭典體 目錄(Dictionary Catalog; Author, Title, Subject의)이 가장 많이 採擇되어 있는 模樣이고 또 可及의 이 Dictionary Catalog가 가장 理想的인 것으로 勸獎받고 있는데 問題는 이 辭典體 目錄의 主題名標目을 어떻게 採擇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現在 우리가 使用하고 있는 主題名標目表는 標目表로서 出版된 것으로는 단 하나 뿐인 延世大學校의 李載喆 教授께서 編纂하신 主題名標目表(List of Korean Subject Headings)(以下標目表라 稱함)이다. 그런데 이 標目表는 우리 學校圖書館에서의 使用은 採擇된 標目(Headings)의 數로 보나 知的 水準이 낮은 中高等學校(以下 中等學校라 稱함) 나아가서는 國民學校 學生들이 使用하는 用語로 보나 이 標目表를 그대로 使用하기란 매우 困難을 免치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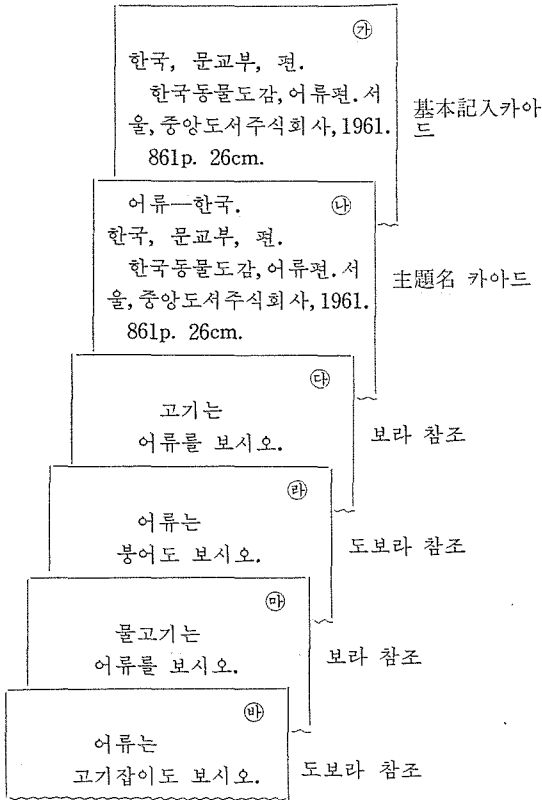
또 採擇된 標目的 數 및 “보라”와 “도보라”의 參照의 數가 지나치게 많아서 業務量을 增加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標目表가 없으니 別道理 없이 이 標目表를 基準삼아 業務를 進行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를 處理하는 데는 우리의 손으로 修正 加減해 가면서 使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 標目表를 中心으로 學校圖書館의 目錄作業(Subject Catalog의)에 關한 問題點을 論하고자 한다.

2. 主題名目錄을 構成하는 카아드의 種類

主題名 카아드(Subject Card)가 主題名目錄(Subject Catalog)의 中心이 되고 가장 重要한 카아드인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主題名目錄을 構成하는 카아드는 主題名 카아드 뿐 만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을 보라”의 參照카아드와 “~도 보라”의 參照카아드, 즉 See Reference와 See also Reference도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이며, 主題名 카아드는 各種 카아드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함으로써 비로서 그 效果를 發揮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보기는 主題名 카아드와 “~을 보라”와 “~도 보라”의 參照 카아드의 세 種類의 카아드의 相互關係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文教部編 韓國 동물 도감—어류편—을 例示한 것인데 標目表에 依하면 “어류—한국”이란 標目を 採擇하게 되고 標目表의 指示에 依하여 “고기→어류”와 “물고기→어류” 즉 “고기는 어류를 보라”와 “물고기는 어류를 보라”의 “보라” 참조를 주어야 한다. 또 그 圖書館에 이미 個個의 魚類名(例; 붕어)의 標目이 採擇되었다고 하면 “어류→붕어” 즉 “어류는 붕어도 보라”와 또 魚業에 關한 標目(例; 고기잡이)이 採擇되었다고 하면 “어류는 고기잡이도 보라”의 “도보라” 참조도 내 주어야 한다. 보기 그림 1의 ㉑가 基本記入 카아드이고 ㉒가 主題名 記入 카아드, ㉓㉔가 “~을 보라” 참조이다. 여기의 “고기”나 “물고기”는 魚類와 同意語이며 이와 같은 同一의 主題를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用語가 몇 가지 썩 있는 境遇 때에 따라 各各의 用語로 主題의 標目이 採擇된다면 同一 主題의 圖書의

(그림 1)



主題名 카드가 몇 개의 장소로 分散되고 目錄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고기” “물고기” 등을 “어류를 보라”의 보라 參照를 주어 “고기”와 “물고기”를 모두 “어류”에 集結시킴으로써 利用者에게 採擇되지 않은 “고기” “물고기”로부터 손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참조 해주는 것이다.

또 ㉑㉒는 이미 그 圖書館에 個個의 魚類 “붕어”나 魚業에 關한 “고기잡이”란 標目로 카드가 提示된 것이 있을 때 이것에 關한 圖書도 利用할 수 있게 하기 爲하여 “~도 보라”의 參照 카드를 내주었다. 또 脊椎動物에 關한 圖書가 있을 때 脊椎動物에 關한 工夫를 하는 閱覽者를 爲하여 “척추동물은 어류도 보라”의 Reference Card를 내 주어야 함은 勿論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을 보라” “~도 보라”의 參照에 依하여 主題名 目錄이 有機的으로 連結되어 한 개의 組織體로서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標目的 採擇과 그 用語

앞의 章에서 例學한바 魚類와 붕어의 關係나 또는 鳥類와 그의 個個의 세 이름(例; 참새, 비둘기 등)의 圖書가 있을 때 中等學校 乃至는 國民學校의 學校圖書館에서도 果然 個個의 名稱으로 標目を 採擇하여야 할

것이나? 하는 것은 問題거리이다. 즉 個個의 動物의 圖書 일지라 해도 그 上位의 主題(例; 어류, 조류 등)로 採擇하면 어떨까?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위에 例學한 “붕어”나 “참새” “비둘기” 따위는 그러하지 않으나 人文乃至 社會科學 分野에 있어서는 標目表에 指示한 個個의 項目은 知識이 얕은 中等學生에게는 用語의 뜻을 잘 理解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學生들이 알지 못 하는 專門的 學術 用語로 採擇된 項目을 使用하지 않고 一般化되어 있는 用語인 上位(上位 主題일수록 一般에 많이 使用되는 用語이므로)의 主題를 標目으로 擇하고 下位의 主題를 削除하는 것이 便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컨대 국제교육, 교과과정, 학습법, 장학제도……等에 關한 圖書이면 모두 “교육”으로, 기적(奇蹟; 기독교의), 사도(使徒; 예수의) 新敎 교과(기독교의)이면 모두 “기독교”로 主題를 주는 것이 學生들에게는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便利하게 利用되기 때문이다. 그 理由는 學校圖書館의 利用者인 學生들은 學術의 깊이를 研究하는 것이 아니고 學習乃至 敎養을 爲한 讀書에 不過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學校圖書館에 入手되는 圖書도 그 大部分이 學習 補充 敎材이거나 혹은 敎養을 爲한 圖書이며 專門的 圖書란 그다지 많지 못할 뿐만 아니라 間或 몇몇 卷帙의 專門 圖書를 保有한다 하여도 學校圖書館 利用者의 最高 學年인 高2~3學年 學生들 만이 利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의 奇蹟을 研究하기에 앞서 基督教의 性格을, 信者로서의 傳道 方法을 研究하기에 앞서 基督教의 敎理, 아니면 信仰의 意義를 알고자 하는 便이며 “日氣”나 “바람”을 찾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상·기상학”을 또는 一元論(一元論)이나 觀念論(觀念論)을 찾지 못 하고 哲學이나 論理學과 같은 上位에 屬하는 主題를 찾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學生들을 相對로 하는 學校圖書館에서는 標目を 選擇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細分하느니 보다는 도리어 包括的이며 活用性 있는 標目を 採擇하는 것이 利用度를 높이는 方案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마치 分類 作業에 있어서 分類表(K.D.C.)의 細目表를 使用하지 않고 329.4의 租稅나 329.43의 直接稅를 모두 329의 財政으로 分類할 수 있는 것과 같은 理論이라고 보겠다. 勿論 위에서 말한 標目的 採擇 範圍는 各級 各種의 學校圖書館의 形便과 目錄構成에 따라 相當히 熟考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이와 같은 方法은 細目表의 使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假令 體有年鑑이란 圖書가 있다고 하자. 標目表에 依하여 “체육”이란 標目を 줄 수 있고 細目表의 “—연감”을 擇하여 “체육—연감”으로 標目이 決定되겠다. 그런데 問題는 學校圖書館에 있어서 標目的 細分은 어느 程度

까지 必要한가? 하는 것이다. 이웃 日本에서의 例를 보면 國民學校 圖書館에서는 原則的으로 細目을 使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例컨데 “交通의 歷史”라는 圖書가 있으면 우리나라 標目表에 依하면 “교통—역사”로 決定되겠으나 國民學校에서의 主題名標目은 “교통”만 주는 것이다. 그리고 中等學校의 圖書館에서는 必要에 따라 細目을 使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日本 全國學校圖書館協會刊, 件名目錄의 作成, 參照).

이렇게 體育年鑑의 境遇도 “체육—연감”과 같이 細目 “—연감”을 주느냐? 아니면 “체육”이란 標目을 주느냐? 하는 細目的의 必要性은 그 學校圖書館이 保有하고 있는 體育關係 圖書의 量에 달려있지 않는가 한다. 體育關係 圖書가 2~3卷 혹은 10餘卷 程度이면 구태여 細目까지는 不必要한 것이 아닌가 한다. 同一 主題名標目的의 카아드의 圖書가 30~40卷 以上에 達할 것이 豫想될 때 비로서 細目的의 必要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問題는 主題名標目的의 採擇에 있어서의 用語이다. 學校 教科書에서 使用된 用語 또는 一般화된 用語가 그대로 圖書館에 導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例를 들면 “어류”와 “고기” 또는 “고기무리”, “조류”와 “새” 혹은 “새 무리”, “포유동물”과 “짐승이 동물”, “패류”와 “조개무리”, “진동”과 “흔들이 운동”, “종양(腫瘍)과 “종기”와 “확진”과 “종두 혹은 우두”, “교량”과 “다리”, “약다”(輻陀)와 “낙타”, “나병”과 “문동병”, “산악”과 “산”等等 많은 例를 들 수 있는데 위의 例에서 學生들에게는 모두 後者가 더 親近感을 주는 用語인데 標目表에서는 前者를 標目으로 使用하였으니 學生들 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한다. 勿論 上記 例는 全部 “보라” 參照에서 뽑은 것이니 참조 카아드가 提示될 것이나 學校圖書館에서는 “조개류→패류”의 참조 보다는 조개류(혹은 조개무리)로 標目을 주고 一般人을 爲해서 必要하다면 反對로 “패류→조개류”의 參照를 주는 것이 學生들을 爲해서 多少나마 더 親切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4. 標目表의 處理

지금까지 學校圖書館에서 標目表를 使用할 때에 일어나는 問題點을 들었다. 그렇다고 標目表없이 獨自의 主題를 標目으로 삼는 다는 것도 또한 無謀한 일일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標目表를 우리 學校圖書館에 알맞게 使用할 수 있는 方案을 研究해야 할 줄로 안다. 먼저 採擇되는 主題의 標目은 于先 標目表의 그 標目に 체크(√)하여 그 標目이 採擇되었음을 表示하

여 두고 主題名目錄을 作成한다. 그 다음에 “보라”와 “도보라”의 參照 카아드를 만들어야 하겠다. 앞에 例示하였던 體育年鑑에 대해서 라면 標目表 p.413으로

체육	371.7	
→경기		유도
대학·학교스포츠자세(姿勢)		
.....	
.....	
및 각종 운동. 예; 검술; 씨름.		
x. 교육—체육. 미용체조. 학교체조.		
xx. 교육; 스포츠; 여자—보진; 위생; 운동; 운동경기; 체조.		
체조	794.4; 371.7	
→곡예·곡예사(曲藝·曲藝師); 체육.		
x. 미용체조.		
xx. 곡예·곡예사; 스포츠; 운동; 운동경기; 위생; 체육.		

되어 있는데 √체육 371.7과 같이 앞에 체크(√)를 해주고

보기
x. √교육—체육; √미용체조; √학교체육.

의 各各의 앞에 보기와 같이 체크한다. 그리고 “교육—체육은 체육을 보라”, 미용체조는 체육을 보라” “학교체육은 체육을 보라”의 各各의 보라 參照의 카아드를 作成해 주고 다시 p.43에서

√교육—체육 →체육
와 같이 교육앞에 또 체크. p.149의
√미용체조 →체육
에 체크, 또 p.451의
√학교체육 →체육

에 보기와 같이 체크 한다. 그리고 이미 採擇된 標目(例; 교육)이 있으면 p.413의

xx. √교육; 스포츠; 여자—보진;.....
의 교육 앞에 위의 보기와 같이 체크하고 다시 標目表의 p.41의

√교육	370	
→.....	
.....	
.....	
.....	
.....		√체육
.....	

의 체육 앞에 위와 같이 체크 하고 “교육은 체육도 보라”의 See also Reference Card를 作成한다. 여기에 V 교육의 체크는 이미 처음 採擇되었을 때 주어진 V이니 다시 체크할 必要는 勿論 없다.

이렇게 體育年鑑 한 卷의 主題名目錄을 作成하는데 매우 複雜한 手續을 거쳐야 하는데 위의 例는 그리 複雜한 例는 아니다. 이보다 더 複雜한 것도 많이 있으니 司書教師의 業務量이란 이무 말할 수 없이 어려우며 職務 遂行에 莫大한 精力과 時間을 消費하게 되는 것이니 問題는 여기에서 또한 誘發된다. 即 다시 말해서 學校圖書館이란 大學圖書館이나 一般 公共圖書館과 같이 藏書의 量으로나 構成面으로나 廣範圍하지 않고 보면 目錄 組織에 있어서도 學校圖書館에 알맞게 構成하여야 할 것이다.

5. 標目表의 訂正

主題名標目表를 使用하는데 있어서는 學校圖書館의 級別 혹은 種別이나 地域社會의 形便에 따라 그 事情을 달리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알맞게 標目表를 訂正 削除 或은 學問 文化의 發展에 應하여 새로운 主題를 追加하지 않으면 안될 境遇도 생긴다. 우리가 使用하고 있는 李載喆氏의 主題名標目表는 學校圖書館을 위하여 編纂된 것이 아니므로 學校圖書館에서는 標目表 그대로를 使用한다면 必要 以上の 精力을 消耗시킬 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理由는 學校의 規模는 無限定하고 擴張될 수 없으며 따라서 學校에 隸屬되어 있는 圖書館의 規模도 또한 限定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利用者의 範圍나 知的 水準도 限定되는 것이며 藏書量이나 藏書의 構成도 限定되기 때문이다. 또 公共圖書館이나 大學圖書館과 같이 數十萬卷의 장서 保有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學校圖書館에서는 自己 나름으로의 알 맞는 目錄 組織이 必要하지 않을까 한다.

(1) 標目表의 削除 및 追加

標目表의 訂正에 있어서는 圖書館이 發展할 수 있는 可能性의 規模와 標目表에 對한 充分한 知識이 必要할 것이다. 輕率한 標目的 訂正은 매우 危險한 일임은 勿論이다. 한편 削除된 標目은 그 圖書館에서는 永久히 採擇되지 않는 것이니 特히 標目的 削除에 對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標目 削除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標目表 p.145에서 라파엘 전파나 인상파(미술)와 같

미술(지리 세 목을 쓴다) 700	
⇒건축	상업미술
고고학	상징주의
.....
.....
라파엘 전파	인상파(미술)
.....

이 美術學의 各 學派에 關한 圖書는 學校圖書館에 그리 많지도 않을 뿐 더러 學生들이 이것을 찾는 일도 거의 없다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라파엘 전파”라는 標目이 나가지 않도록 朱線으로 두 줄 그어 削除하고 같이 p.120의 “라파엘 전파”도 같이 削除해 버린다. 그리고 “라파엘 전파”라는 標目은 “미술”로 택한다. 이것은 3章에서 言及한바 있다.

例 p.145

미술(지리 세 목을 쓴다) 700	
⇒.....
.....
.....	인상파(미술)
.....

標目的 追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標目表 PXXVII에 指示한 바와 같이 고유명, 단체명, 보통명은 例示의인 것 外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主題名 作業者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追加하지 않으면 안된다. 假令 “阿片戰爭”에 關한 冊이 入手되었다고 하면 阿片戰爭은 中高校 學生에게 잘 알려져 있는 歷史의 事實이므로 “아편전쟁”을 그대로 標目으로 잡고 p.269에

아편(阿片) 615.7:616.86	
xx. 마약(麻藥)	
_____	√아편전쟁
아프리카/남부 968:916.8	xx중국—역사

와 같이 插入 追加하고 V 한다.

(2) 用語

用語에 대해서도 可及의이면 教科課程의 用語를 그대로 標目으로 삼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또한 標目表에 訂正을 加해야 한다. 標目表 p.442의 “포유동물”보다는 學校圖書館에서는 國民學校로부터 中等學校까지 共通의으로 使用되는 “짐승이 동물”로 標目を 잡는다.

例 p.442	
짐승이 동물(지리 세 목을 쓴다) 699	

위와 같이 포유동물을 것먹이 동물로 訂正하고 다시 p.370에 와서

p.370
접촉반응(接觸反應) 541.3
xx. 화학; 화학/물리·이론
접촉전염 →전염병
_____것먹이 동물
정골법(整骨法) 651.8

와 같이 追加한다. 勿論 必要한 參照指示도 追加 記錄해 주어야 한다.

6. 結 論

以上 主題名標目表를 學校圖書館에서 使用할 때 誘發되는 여러가지 問題點을 例示하여 보았다. 이를 適切히 使用하기 爲하여 標目表를 訂正(削除, 追加)해 가면서 使用할 것을 論했으나 事實上 標目表를 訂正하며 使用한다는 것 또한 容易한 일은 決코 아니다. 標目表를 訂正한다는 것 또한 莫大한 業務量을 招來함을 免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 解決策은 없을까? 한 가지 方案이 남아 있다고 본다. 即 初·中等學校別의 專用 標目表의 制定이다. 이 學校圖書館用 主題名標目表가 發刊되며는 司書教師의 業務量도 大幅 減少될 것으로 믿는다. 現標目表를 보며는 長長 500페이지에 達하며 九千餘個의 標目이 例示되어 있다. 여기에 →참조가 大略 五千餘個, 標目으로 採擇된 것만도 近 四千餘個(細目도 包含)가 있으며 여기에 P XV에 指示한 고유명, 단체명, 보통명等 및 P XV의 細目表의 細目を 追加시킨다면 四千個보다 훨씬 더 많은 標目的 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中等學校의 敎科課程에 나오는 語彙 속에서 主題를 採擇한다면 그렇게 많은 수까지는 必要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 더우기 參照主題名 五千餘個에는 中等學校圖書館에서는 必要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므로 中等學校 敎科課程內의 語彙를 嚴密히 檢討하여 主題를 選定한다면 標目으로 採擇할 수 있는 主題가 約 二千個, 參照主題가 約 千個에서 二千個로 大幅 縮小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範圍內에서의 學校圖書館用 主題名標目表가 誕生한다면 司書教師의 業務量의 減少도 감소이거니와 學生들의 카야드 索出도 容易하여지고 따라서 閱覽의 効果도 크게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것은 發展 途上에 있는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前途에 미치는 影響도 크게 左右되는 問題라고 생각된다. 모름지기 學校圖書館에서 主題名 標目表의 使用의 繁雜이 두려워 主題名 目錄을 내지않아 閱覽者에게 不便을 주는 곳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學校圖書館이 하루 速히 發展하여 正常的인 圖書館 運營이 이루어짐으로써 前進하는 敎育에 많은 功獻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參考文獻>

李載喆編. 주제명표목표. 서울. 연세대학교. 1961.
 韓國圖協編. 韓國十進分類法. 서울. 1964.
 日本全國學校 件名標目表 一高校用一 東京. 明治圖書館. 昭和 29
 圖書館協會
 " " 一中學校用一 "
 " 件名目錄의 作成. 東京. 昭和37.
 山下榮件. 件名目錄의 作り方. 京都. 蘭書房. 1953.

(25面에서 繼續)

이 도서관 자료의 빈곤을 앞에서 상세히 더듬어 보았다. 우량도서 선정으로 악서를 추방하고 어린이나 부모가 마음놓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우량도서 추천을 위해 각 출판사마다 매사에 유의하여 어린이에게 알맞는 도서를 간행할 것이며 그 내용도 향상될 수 있다. 아동문학도 이 기회에 보다 바람직한 작품으로 다듬어지고 어린이가 즐겨할 수 있는 창작품이 배출될 것이다.

넷째 어린이 도서관인을 교육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자료가 준비되었어도 이를 관리할 도서관인이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로 그치고 만다. 어린이 도서관인이 자리잡고 도서관을 설비한다면 보다 쉽게 자료와 시설이 완비될 수 있고 어린이 도서관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진다. 일단 훈련받은 도서관인이 실무에

종사하며 더 바람직한 어린이 도서관을 위해 노력한다면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사서를 위해서는 대학과정과 수차에 걸친 강습회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도서관인을 위한 강습회나 교육과정은 거의 없었다. 국민학교 도서관운동이 활발치 못한 이유도 도서관인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사서교사보다 담임교사를 더 따르는 실정이므로 담임교사의 지도가 큰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민학교 교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사서교사가 이수해야 될 과정을 준비하고 누구나 필수로 이수하게 한다면 국민학교 도서관인은 쉽게 훈련되리라 생각한다. 어린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서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어린이도서관인의 교육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